

지역 소식통

김제서, 대형사고 예방 특별교통관리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7월 21일부터 8월10일까지 21일간 "하계휴가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하계 휴가철에는 관내 고속도로, 주요 국도 등에서 전년에 비하여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국도로공사 전망)됨에 따라 도내 주요 피서지가 위치한 부안, 군산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인 김제서 관내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제경찰서에서는 후신교차로 등 주요 통행로에 졸음운전 예방 홍보 플래카드 게시와 문자전광판 홍보를 전개하고 매주 2회 이상의 불시 음주단속, 캠프터를 활용 한 보행자 보호 위반과 신호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소방서, 소방차길터주기 훈련 실시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20일 '모세의 기적' 캠페인의 대국민 확산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소방차량 5대와 경찰차 1대, 19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시청사거리 ~ 경찰서오거리' 구간에서 실시했으며, 소방차량을 동원하여 일반차량 피양훈련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화재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 육내진입이 곤란해지고, 심장지 환자의 경우는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이 4분이기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의 빠른 현장도착은 매우 중요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새마을회, 흙살리기 행사 전개

김제시새마을회(회장 김창수)는 지난 19일 오전 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흙살리기 자원모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는 관내에 버려지고 소각되는 농약병, 폐비닐로 인해 갈수록 오염되는 농촌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김제시새마을회 회원들이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이번 흙살리기 자원모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김제시지부 등 새마을회원 100여명은 일년 동안 알뜰하게 수거해 둔 폐농약병, 농약봉지를 5톤 트럭 10대 분량을 모았으며, 김제시의 협조를 얻어 한곡환경관리공단과 연계, 소중한 자원으로 환원시켰다.

또한 수거된 자원처리는 즉석판매, 수익금을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삼례읍에 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립된다. 사진은 지난 6월 협약 체결하는 모습.

# 완주 삼례읍 행복주택 건립

300세대 규모...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완주군 삼례읍에 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립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하는 도심형 아파트다. 면적은 10평~20평형 사이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선정 심의회를 열고, 삼례 행복주택의 필요성 및 후보지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참석한 심의회 위원 전원 의결로 완주군 삼례읍을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삼례 행복주택에는 300세

대 규모에 총사업비 300억 정도가 투입되며, 사업비는 정부재정 30%, 기금 40%, 나머지 30%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예정자가 부담하게 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8년 상반기에 착공, 2020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례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는 최근 신축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우석대 학교, 삼례 터미널, 이전 예정인 삼례중·여중 부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완주산업단지 및 익산으로의 교통편리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앞서 완주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

협약을 통해 군은 행복주택의 부지(군유지)를 제공하고, 설계·시공·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행복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미래의 꿈을 키우는 청년층의 주거불안 요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삼례 행복주택이 안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정착 1호 김진원 세대 '귀농 첫발'

영농기초·농기계교육·농촌생활 실용교육 등 이수

완주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귀농한 '정착 1호세대'가 완주군민이 됐음을 신고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정착 1호인 김진원 세대가 지난 19일 집들이를 열고, 귀농의 첫발을 내딛었다.

집들이에는 박성일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 센터에서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 이웃주민 등이 참석해 정착을 축하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귀농한 김진원 세대는 올해 3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해 영농기초, 농기계교육, 농촌생활 실용교육 등을 이수했다.

또 센터의 도움으로 정착 지역을 조사, 최종적으로 경진면에 부인, 아들과 함께 정착했다.

김 씨는 "체류형에서 배우고 익

힌 내용을 지역에서 잘 펼쳐 보겠다"며 "이웃주민들과도 활발히 교류해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일 군수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올해 처음 운영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첫 정착 세대가 탄생하게 돼 기쁘다"며 "다함께 열어가게 으름도시 완주를 위해 농업융성프로젝트, 로컬푸드 2단계 먹거리 정책 수립으로 고령농, 귀농을 포함한 농토피아 완주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 고산면에 소재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예비 귀농인 10세대를 선정해 1년간 가족과 함께 임시체류하면서 지역탐색 및 귀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설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이후천 김제부시장, 예산확보 발품행정 펼쳐

총사업비 결정·내년 국비 90억원 지원 건의

이후천 김제시 부시장은 20일 지역구 김중회 국회의원을 만나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굳건히 하였으며 국회 예결위원실과 예결위소속 심의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국가예산확보 활동에 나섰다.

이 부시장은 먼저 김제시 최대 현안사업인 '김제육교 재가설사업(240억원)'은 국비지원비율과 총사업비 결정 지연으로 2017년 국비사용과 2018년도 국비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총사업비 결정과 2018년도 국비

9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다.

20개 종자기업 입주 진행과 함께 지난해 준공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123억원)'의 필요성과 사업성을 강조하고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 3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예타 심사 착수 3년이 지난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524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2018년 예산 28억원이 기재부 심의중 명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통과에 많은 협조를 요

청하였으며, AI 등 가속전염병 취약지구인 용지 지역 축사를 현대화하는 'AI상승발생지역 친환경축산 개편사업(225억원)'에 김제시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밖에 '용지정착농민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매입(487억원)'이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과 가속전염병 발생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 반영과 국비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국경과제 및 지역공약사항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 완주 덕암마을을 명예이장 위촉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박성일)는 지난 19일 완주 고산 덕암마을에서 침체된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자인 병원 이병관 병원장을 덕암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재욱 완주부군수, 최병수 고산면장, 조인갑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박성일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장,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 이병관 대자인병원장과 직원, 서흥원 이장과 마을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위촉식에서 대자인병원은 덕암마을에 마을주민들의 건강 체크를 위해 자동 혈압측정기를 기증했으며, 마을을 주기적으로 찾아 마을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약속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운동은 기업CEO와 단체인 명예이장으로 이루어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도농협동의 모델을 창조하자는 운동이다.

박성일 지부장은 "현재 농촌은 인구 감소와 70세 이상 초고령화 진행으로 취약(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신 농촌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이병관 병원장은 "앞으로 명예이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협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오임 자격증 휘트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휘트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휘트
국가대표 코치 역임	김)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	